

#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

2021. 4. 21.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김규식

## 1. 발 의 자: 임종숙 의원

## 2. 제안이유

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출입을 거부하여 공공장소 등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)

라.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및 위원회(안 제6조, 7조)

마. 민간단체 등의 지원(안 제9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장애인복지법」

나. 협조부서: 어르신장애인복지과

다. 예산조치: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·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

라. 입법예고(2021. 4. 2. ~ 4. 7.) 결과: 특기할 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전에 대한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고, 보조전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7조 시행규칙까지 총 7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○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사업, 지원(안 제4조 ~ 안 제5조)
  - 안 제4조에서는 보조전 및 훈련전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홍보, 교육 및 사업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
  - 안 제5조에서는 안내전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내에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둠
- 협력체계 구축, 시행규칙(안 제6조 ~ 안 제7조)
  - 안 제6조에서는 보조전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1) 및 동법 시행령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」 2)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보조견 출입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저조한 것이 현실이며,
-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접수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, 제재조항만으로는 보조견의 원활한 외부 활동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됩니다.
- 길 안내, 위험 감지 알리기 등의 특별훈련을 거친 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을 안내견(guide dog)이라 하며, 이밖에도 청각장애인 보조견, 지체장애인 보조견, 치료도우미견이 있습니다.
- 2020년을 기준으로 영국, 미국 등 세계 27개국에는 약 20만 여 마리의 안내견이 활동하고 있고,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3년부터 본격적인 안내견 양성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4마리<sup>3)</sup>가 활동 중입니다.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·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,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

1) 제90조(과태료)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3.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,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

2) 제49조(차별행위)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.

3) 붙임 [참고 1]

○ 또한, 장애인 보조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입을 장려하고자 보조전 및 훈련전의 출입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픽토그램<sup>4)</sup>을 보급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조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장애인 이동권 및 복지 향상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※ 참고 [1] : 장애인 보조전 종류

| 구 분               | 현황 | 역 할  |
|-------------------|----|--|
| 시각장애인<br>보조전(안내전) | 70 | 장애물을 피해가도록 위험을 미리 알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안내함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청각장애인<br>보조전(청각전) | 60 | 초인종, 팩스, 자명종, 아기울음, 압력밥솥, 물주전자, 화재경보 등의 소리를 듣고 소리의 근원지까지 안내함.        |
| 지체장애인<br>보조전      | 70 | 지체장애인의 휠체어를 끌어주고 신문이나 리모컨 등 원하는 물건을 가져다주는 등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함.            |
| 치료도우미전            | 4  | 정신지체, 발달장애인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, 도우미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신회복의 재활과 치료적인 자극이 되도록 함. |

※ 참고 [2] : 성동구 장애인 현황(2021. 2월 기준)

(단위:명)

| 계      | 지체             | 시각             | 청각             | 지적  | 뇌병변   | 자폐성 | 정신  | 신장  | 심장 | 기타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|-----|
| 11,397 | 5,203<br>(45%) | 1,163<br>(18%) | 1,626<br>(34%) | 699 | 1,180 | 182 | 415 | 479 | 34 | 416 |

4) 픽토그램(pictogram): 사물이나 시설, 사회적인 행위나 개념 따위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단순화하여 나타낸 그림문자. 또는 그런 그림문자를 사용한 안내판이나 표지판. 주로 공공시설이나 교통안내판 따위에 사용(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같은 의미로 통할 수 있는 그림으로 된 언어체계)